

# Stream Bundle

---

## as Situation Kit.

Anthony  
Pork

---

---

---



0. moshi의 의미, 원형  
 는 곧 meta 지식을 의미함  
 '이게 뭐냐?' '무엇 때문에 지킨 걸까?'

1. silence를 action으로 취급하는 첫번째, 혹은 원대한 시도. LM에게도 그게 중요

가능할까. silence를 예측한다는 건 상황 전체를 모델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.



저절로 시차가 생기는 것도 대안함.

이 사진이 충격적인건, 예전엔  
 했던 CCA, world 모델과  
 비슷하게 때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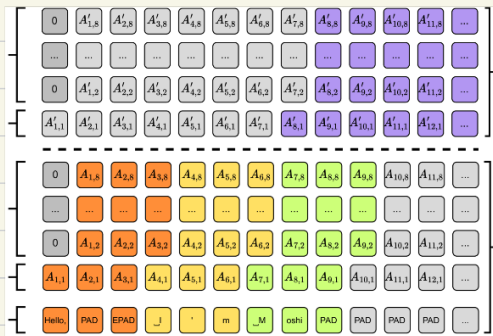
내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함께  
 모델링 한다는건, 그걸 전환하는  
 상황 (거품) 역시 함께 예측해서

만들려면 전혀 도움.

이걸로 거부와.

이 tensor width가  
 처리능력이겠네  
 tensor width/sec

2.



every stream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임

이 전체 흐름이 곧 situation 인지임. 아닐수도 있지만, why not? 인간화.  
 이걸, 능동성은 해결.

1강. continual/learning은?  
 계속 들어올수 있게 되있기 때문에 continual한 상황 자체는 갖춰졌지만,  
 learning은 또 다른 문제, 위치 해결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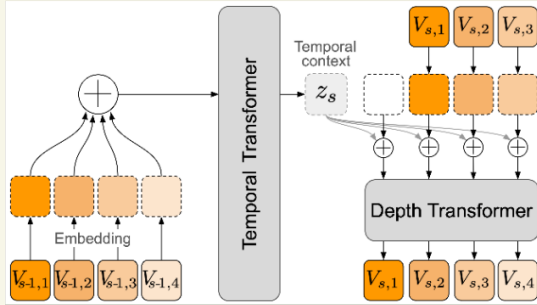
이걸은, unlearn/creativity/emergence가 해결가능하다.  
 Arc-A&I가 해결 가능하다.

3. Stream 구성. stream bundle (다발)  
은 곧 전체의 시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함.

모든 stream은, 꽤 다른 역할

각각 다른 enc & dec 령을 가질 수 있음.

continual learning의 의미는, 유연과 적응을 위한 **순연**에 불과한데,  
유연과 적응을 위해서는 **상황에 대한 판단** 역시 stream으로써 가능해야 함.



그리고 stream들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  
계층은, 궁극의 흐름  
상에서부터 해리까지.

a. **상위 stream**  
↓  
상황을 담당

b. **상위 stream**  
↓  
상황을 담당  
positional embedding  
같은 거 쓰지 않아도, 정보에서 가능

속도를 한다면,  
잠시 멈춰서 silent를 내고,  
상황모양을 돌리면 될 것

4. 입장 정리

Q. 굳이 LM을 Stream Bundle로 만들 이유가 있냐?

A. 자기 알만 하는 것이 아니라, 동시에 상황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해 줌.

Q. 상황을 전부 커버 가능하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?

A. 전체적 시야를 얻을 수 있게 때문에 더 나은 판단이 가능.

Q. 그거 그냥 LM의 출력을 가지고, "전체를 생각하는 LM을 수행해  
봐"라고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.

A. 그렇게 하지 않으면, 할 수 있는 LM 연산이 없음.  
LM의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, 혹은, 텍스트를 그냥 나열하는  
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학적 이론적으로 규명되어야 해서  
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좋은데,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 
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다.

내부에서 구현하는 것과, 외부에서 구현하는 것에는  
무슨 차이가 있는가?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.

A. LM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.  
뇌가 빠른듯, 실수를 줄여야 한다.

Q. 알겠고, 전체적인 시야를, 뇌를 보는 능력을 기르면, 뭐 CLI 작업할  
때 속도가 더 빠르냐?

A. 언제나 알맞은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. 물론 처음엔  
좀 모욕을 시켜야 할 거다. 내 뇌를 좀 보게 말이다.

5. 26/01/30 : 다시 입장정리.

- a. multi-stream에 꽂혔던 이유는,  
계층구조가 드러났고, 그걸 아무런 거리낌없이 적용했다는점.  
멀티스트림 자체가 대단한 성과를 불러일으키지는 X.
- b. 그리고,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되는 느낌.  
그래서, 그냥 만들어 보는 수밖에.